

무엇이든 시장에 다녀왔지 -「허를 사 왔지」

시원이는 '무엇이든 시장'에 갔어요.

'무엇이든 시장'에는 이름처럼 없는 게 없지요.

집어넣는 순간 무엇이든 사라지는 지갑, 귓속말을 듣는 귀, 하고 싶은 말을 맘껏 하는 혀…….

내가 '무엇이든 시장'에 간다면 무엇을 살까 상상해 보세요

❶ 나는 무엇을 살까요?

❷ 내가 산 물건의 특징은?

❸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까닭은?





내 친구를 데리러 온 동물 -「나를 데리러 온 고양이 부부」

“우리를 소개하마. 우린 네 엄마 아빠다. 그동안 널 사람 손에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.”

어느 날 찾아온 고양이 부부를 따라 지은이는 집을 나섭니다.

느긋하게 산책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쿠키를 조금씩 갇아 먹는 걸 좋아하는 점이 닮았거든요.

친한 친구의 특징이나 버릇을 관찰해 보세요. 친구와 닮은 동물이 있는지,

어떤 점이 닮았는지 찾아서 아래에 4컷 만화를 그려 봅시다.

내 친구를 데리러 온 동물:

